

## OPEC과 국제석유시장

이 자료는 미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매일 발표하는 OPEC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며, 2002. 6. 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OPEC은 6. 26일 빈에서 소집되는 각료회담에서 산유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OPEC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밝히고 있다. 한편 베네주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 책임자로 임명된 로드리게스의 후임 사무총장은 이번 6월 회에서 선출되며, 역시 베네주엘라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은 알제리,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주엘라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OPEC은 현재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약 77%, 세계 석유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어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편집자주

### OPEC 합의사항(Comp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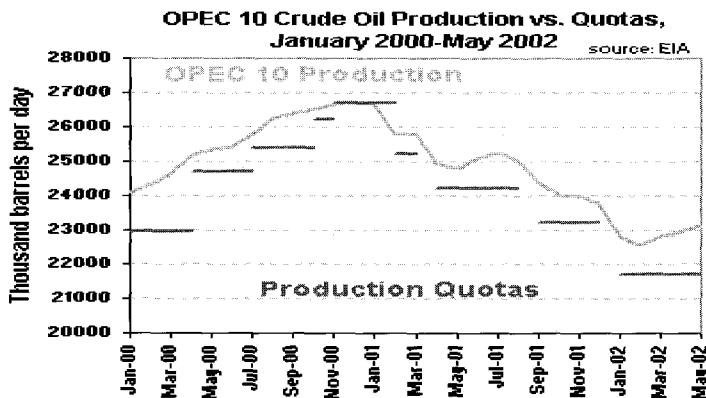
2002. 5월 OPEC의 석유생산량은 4월에 비해 약 80만bbl/d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은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30일간('02.4.8-5.8)의 원유금수 조치가 종료되어 다시 수출물량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베네주엘라는 석유 收入 증가를 위해 쿼타보다 거의 20만bbl/d를 초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주엘라의 국영석유회사 PdVSA의 신입사장

으로 임명되어 OPEC 사무총장직을 떠나게 된 로드리게스는 베네주엘라가 쿼타인 250만bbl/d에 근접한 생산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주엘라 전체 석유생산의 약 1/2을 수입하는 미국도 베네주엘라로부터는 석유 輸入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OPEC 10개 회원국(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 제외)은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30일간의 원유금수 조치로 발생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지난 4, 5월의 생산량 증가

는 OPEC의 쿼타 변동에 따른 기존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쿼타 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화는 처음 2~4개월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곤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난 1월초 쿼타 변동으로 OPEC 10개국의 처음 2개월은 생산량이 감소했다가, 2월 이후 56만bbl/d 정도 생산이 증가했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로 금년도 2/4분기 OPEC 10개국의 평균생산량은 쿼타보다 1백만bbl/d가 초과한 것으로

OPEC 10개국의 원유생산과 쿼타  
(2000.1~2002.5)



추산된다.

현재 OPEC의 어떤 회원국들도 설비한도까지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OPEC이 생산쿼타를 500만 bbl/d, 거의 20%까지 줄이고 있어, 2001. 1월 이후 잉여 석유생산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OPEC 10개국의 잉여설비는 600만bbl/d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아랍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2002~2003년 기간에 OPEC의 생산설비가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OPEC 10개 회원국들은 생산설비와 세계 수요에 맞추어 생산쿼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

### 非OPEC 산유국과의 협력

러시아 노르웨이 멕시코 앙골라 및 오만 등 非 OPEC 5개 산유국은 2002. 1월부터 합계 462,500bbl/d 원유의 생산 또는 수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 감축합의는 OPEC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역시 2002. 1월부터 발효된 OPEC의 150만bbl/d 원유감산을 위한 주요 전제 조건이었다.

노르웨이는 2002년도 상반기 석유생산을 302만 bbl/d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1/4분기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량을 과감히 감소시켰으며, 역시 2/4분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월에도 생산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계획이다. 멕시코 국영석유사 PEMEX의 월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1월 이후로 156만bbl/d의 수출목표량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4월 통계 자료를 보면 PEMEX와 멕시코 에너지부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PEMEX의 수출량이 이 목표

를 초과했는지 미달되었는지 명확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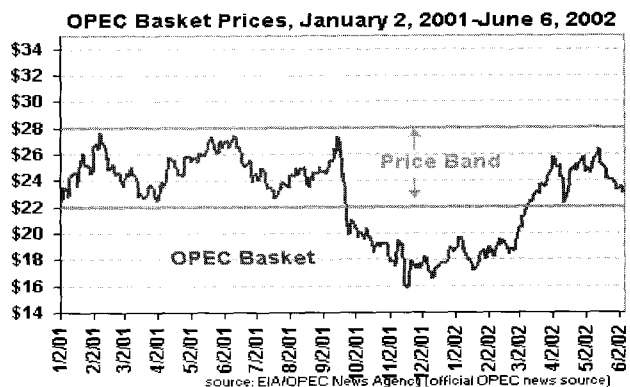
감산에 합의한 나머지 非OPEC 3개 산유국은 목표량을 준수하지 못했다. 앙골라는 22,500bbl/d의 감산을 약속했었는데, 신규 대륙봉의 생산이 개시되면서 1/4분기의 평균생산량이 오히려 약 10만bbl/d나 증가했다. 오만의 1/4분기 생산량은 당초 약속한 감산량 4만bbl/d의 절반 수준인 1.8만bbl/d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2002년 상반기 동안 15만bbl/d를 감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2001년말 수준을 초과했다.

非OPEC 5개 산유국 중 금년 6월 이후에도 감산 합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OPEC 관리들은 이들 국가와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며, 앙골라 카자흐스탄 멕시코 오만 러시아 및 시리아를 초청하여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OPEC과의 대화를 할 계획이다.

### OPEC과 국제석유시장

OPEC의 바스켓 가격이 목표 범위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어, 10개 회원국들은 6. 26일 개최되는 각료 회의에서 생산쿼타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OPEC 바스켓 가격 변화 추이  
(2001.1.2~2002.6.6)



다. 즉 시장상황(fundamentals)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정도는 아니며, 최근의 유가인상은 상당부분 중동지역과 베네주엘라 그리고 보다 최근의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초래된 "전쟁프리미엄"(war premium)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OPEC는 오래동안 기다렸던 석유수요 회복이 일어나고 잉여재고량이 감소하게 되는 3/4분기말 경에는 상황을 재검토할 것임을 암시했다.

### OPEC의 생산량 증가 시점은?

OPEC 회원국들은 아직은 생산쿼터를 증가시킬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OPEC의 산유량 상한선과 산유쿼터에 대해서 사우디의 나이미 석유장관은 로드리게스 사무총장과 만난 직후 "현재의 유가가 적정수준(배럴당 22-28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재고량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서 가격에 압박요인이 될 재고량의 증가나 감소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랍에미리트의 나세리 석유장관도 동감을 표시하며 "현재의 상황이 OPEC의 산유량 상한선을 바꿀 하등의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OECD의 석유 재고량이 최근 수주동안 계속 증가해왔다. 계속되는 국제석유수요의 저조와 지난 겨울 따뜻한 기온으로 계절적인 수요가 높지 않아 지난 12월~5월간 OECD 국가의 재고량이 2001년에 비해 50백만 배럴 이상 상회하였으며, 2000. 5월에 비해서는 150백만 배럴이나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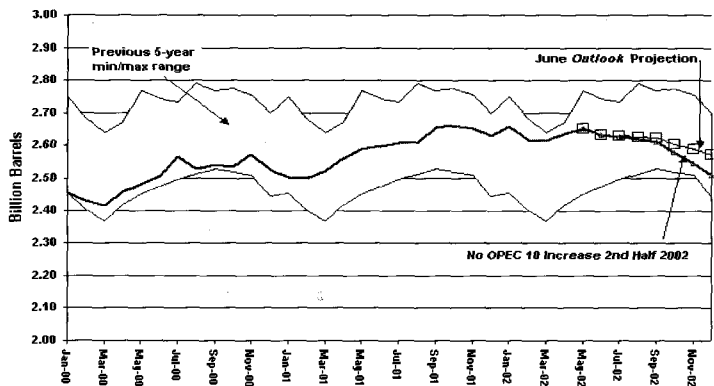
OPEC으로서는 언제쯤 재고수준이 가격을 끌어올려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금년 1월에 시작된 OPEC 10개국의 생산감축, 이라크의 석유수출 감소 및 2002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석유수요 회복이 재고량의 감소와 국제유가 인상의 형태로 가시화 되어야 한다.

EIA의 6월 단기에너지전망 자료에서는 지나친 유가인상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OPEC 10개 회원국이 2002년말 훨씬 이전에 지난 2월의 생산수준보다는 1백만bbl/d를 더 생산하여 예상되는 수요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OPEC 10개국의 초과생산이 이미 필요량의 1/2을 충족시켰지만, 2002년 4/4분기까지는 추가생산을 하여 지난 5년간 평균 재고량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OPEC 10개국이 2002년도 후반기에 2/4분기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OECD 국가의 재고량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평균 재고량 수준의 최저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2000년 OECD 국가의 재고량이 최저점 수준으로 감소하였었는데, 그 결과 2000년 하반기 WTI 유가가 배럴당 평균 30달러를 넘어섰다. EIA의 6월 전망 자료에서는 6월중 쿼터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은 증가하여 WTI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아래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OECD 국가의 석유재고량  
OECD Commercial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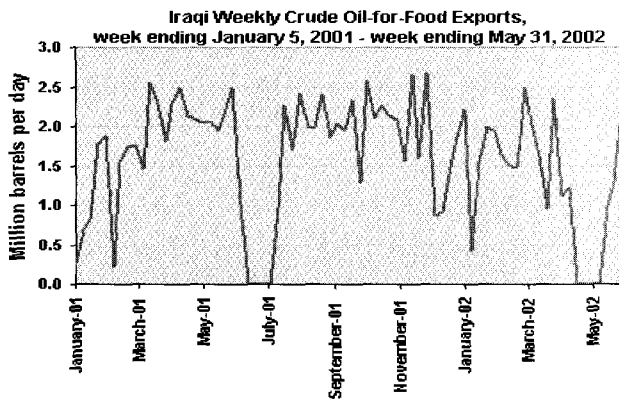
100만bbl/d 초과 석유 순수출국 (2001)

순위	국가명	순수출량(100만bbl/d)	순위	국가명	순수출량(100만bbl/d)
1)	사우디 아라비아	7.38	7)	나이지리아	2.00
2)	러시아	4.76	8)	이라크	2.00
3)	노르웨이	3.22	9)	쿠웨이트	1.80
4)	이란	2.74	10)	멕시코	1.65
5)	베네주엘라	2.60	11)	리비아	1.24
6)	아랍에미리트	2.09	12)	알제리	1.24

## 이 라 크

이라크의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에 의한 석유수출이 2002. 4. 8일부터 5. 8일까지 1개월간 중지되었다. 5. 8일 이후 수출이 신속히 재개되어 공급량이 2백만bbl/d를 넘어 서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다시 감소하는 쪽으로 반전되었는데, 5. 29일에 있었던 'oil-for-food program'의 연장(rollover) 문제와 관련된 일시적 현상이었다. UN의 재재조치로 이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5월말/6월초와 11월말/12월초 두 번씩 연장에 대한 가부가 결정된다.

이라크의 석유-식량 교환 원유 수출량 변동  
(2001.1.5-2002.5.31)



source: UN Office of the Iraq Programme/EIA

이라크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데, 석유수출은 UN의 'oil-for-food program'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석유수출 收入은 인도적 물자구입이나 석유산업의 유지보수에만 사용 가능하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UN의 'oil-for-food' 계정에 들어가지 않는 추가 收入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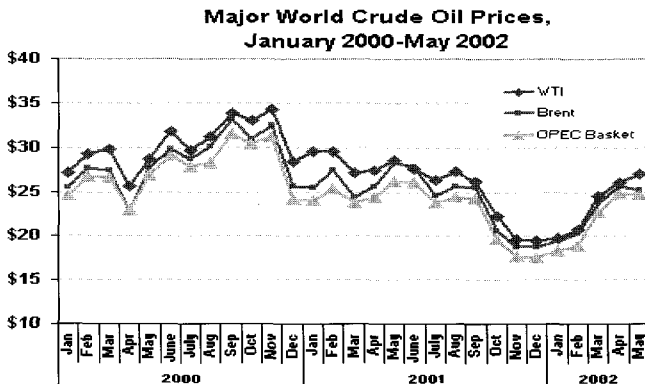
추가요금(surcharge)이 석유의 기본가격에 덧붙여지는데, 기본가격은 UN 계정에 반영되고 추가요금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직접 흘러들어 간다. 그런데 이라크의 원유수출 가격은 UN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이유는 수입업자들이 기본가격과 추가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므로 이라크의 원유가격은 추가요금을 합한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왔었다. 이러한 추가요금은 불법이며, UN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으로 선적되는 이라크산 원유가격은 소급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라크산 원유의 카르고당 가격은 월말에 결정되는데, 원유의 시장가격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추가요금에 대한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UN이 허용하는 석유수출 이외에 이라크는 인접국인 시리아를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라크와 시리아 양국간에 건설되어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던 송유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요르단과 터키에 육로수송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라크산 원유 구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유가격의 소급산정, 추가요금, 가끔 수출중지로 인한 신뢰도 문제 때문이다. 유가의 소급산정방식이란 인접한 유럽의 항구로 공급되는 이라크산 원유는 시간상 판매가격이 결정되기도 전에 정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라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 공급되는 원유는 도착에 4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유가가 판매후 상당시간이 지난뒤에 결정되기는 하지만, 최종 목적지에는 도착도 하기 전에 결정되는 셈이다. 추가요금은 시장판매 가격에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가끔 발생하는 수출중단은 석유 공급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주요 국제유가 변동 추이  
(2000.1-2002.5)



## 국제유가

OPEC은 바스켓 가격에 포함되는 7개의 유종 즉, 알제리 Saharan Blend油, 인도네시아 Minas油, 나이지리아 Bonny Light油, 사우디 Arab Light油, 두바이 Fateh油, 베네주엘라 Tia Juana Light油, 그리고 非OPEC 원유인 멕시코 Isthmus油의 가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OPEC은 국제 석유시장의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이 바스켓 가격을 활용한다.

OPEC 바스켓 가격은 유가 프라이스밴드제(price band mechanism)를 움직이는데 이용되는데, 2000. 3월 OPEC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프라이스밴드제란 OPEC 바스켓 가격을 기준으로 배럴당 22달러 이하 또는 28달러 이상에서 일정기간(현재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생산량을 조정하게 되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생산량 조정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현재는 자의적으로 微조정(fine-tune)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01년 OPEC의 생산량 조절은 바스켓 가격을 유지하는데 아주 성공적 이었다.

OPEC은 미국의 '9.11 사태'가 발발하자 OPEC의 가격유지보다 시장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프라이스밴드제 시행을 일시 중지했었다. 공식적으로는 2002. 1월로 밴드제 시행이 중지되었지만, 현재 바스켓 가격은 밴드가격 범위내에 들어있으며, OPEC 회원국들은 배럴당 22-28달러 내에서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油價 결정에 "기준"(benchmark)이 되는 주요 국제원유는

국제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미국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뉴욕거래소(NYMEX)에서, 북해산 브렌트油는 런던 국제석유거래소(현재 인터컨티넨탈거래소에 합병)에서 거래된다. WTI油는 경질의 저유황 원유이기 때문에, 알제리産 Saharan Blend油(경질저유황원유)와 두바이産 Fateh油(중질고유황원유)의 평균치인 OPEC 바스켓 가격보다는 일반적으로 비싸다. 브렌트油도 WTI油보다는 못하지만, 경질의 저유황원유이기 때문에 OPEC 바스켓 가격보다는 역시 높다.

미국 정유공장들의 수입원유 평균가격이 '정유사수입가격지표'(IRAC)로 이용된다. 또한 이 수입원유 평균가격은 평균국제유가의 지표로서 이용되며, EIA의 단기에너지전망(Short-Term Energy Outlook) 작성에 이용되는 국제유가이기도 하다. IRAC 가격과 OPEC 바스켓 가격은 지난 수년간 비슷한 경로를 보여주었다. ☞

(자료정리 : 에너지협의회 이성룡 차장)

2002년도 OPEC의 원유생산량  
(단위 1,000bbl/d)

국가명	1/4분기	2/4분기	'02.1.1 쿼타	생산설비	2/4분기 잉여시설
알제리	779	803	693	1,100	297
인도네시아	1,140	1,120	1,125	1,200	80
이란	3,344	3,367	3,186	3,850	483
쿠웨이트	1,835	1,870	1,741	2,400	530
리비아	1,277	1,290	1,162	1,500	210
나이지리아	1,974	2,003	1,787	2,350	347
카타르	593	593	562	850	257
사우디 아라비아	7,275	7,430	7,053	10,000-10,500	2,570-3,070
아랍에미리트	1,955	1,997	1,894	2,600	603
베네주엘라	2,567	2,567	2,497	3,100	533
OPEC 10개국 소계	22,740	23,041	21,700	28,950-29,450	5,909-6,409
이라크	2,450	1,642	-	3,050	1,408
OPEC 원유 소계	25,191	24,683	-	32,000-32,500	7,317-7,817
기타	2,637	2,687	-	-	-
OPEC 생산 합계	27,828	27,370	-	-	-